

업계 최초 소형택배 분류 자동화 시스템 구축 CJ대한통운, '택배 초격차' 증명

1600억 투자, 내년까지 77곳 설치
작업물량 집중도 분산시키고
상차 작업 등 편의성 높아져

CJ대한통운이 전체 택배 물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소형 상품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MP(Multi Point)'를 택배업계 최초로 구축,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CJ대한통운은 소형 택배 상품 분류를 전담하는 자동화시설 'MP(Multi Point)'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하나의 작업라인으로 운영하던 기존 택배터미널에 분류 시설을 추가 설치해 상품크기에 따라 중대형 상품은 1층, 소형 상품은 2층으로 나눠 동시에 운영하는 형태다. 이를 통해 작업물량 집중도를 분산시키고 최종 배송지역 단위까지 자동으로 분류하면서 생산성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다.

고객들의 주문 상품이 점차 소규모화되면서 택배업계에서는 소형 상품 작업 생산성이 서비스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CJ대한통운의 소형 상품(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의 합이 100cm 이하) 비중은 전체의 87.3% 정도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해 11월 M



2층에 설치된 MP소터로 자동 분류된 소형 택배 상품이 택배기사가 있는 1층으로 전달되고 있다. /CJ대한통운

P 시스템을 도입, 시범 운영해왔다. 택배 빅데이터를 분석해 소형 상품 주요 발생 지역을 선정해 현재 27곳에서 본격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1600여억원을 투자해 내년 말까지 총 77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 2016년부터 1400여억원을 투입해 힐스터 및 ITS를 설치했다.

MP의 가장 큰 특징은 택배 중계의 효율성을 높인다. 택배는 일반적으로 '집화 터미널-허브터미널-배송 터미널'의 이동 과정을 거친다. 이전엔 집화 터미널에서 소형 상품 작업시 권역 단위(수도권, 지방권)로 분류해 허브터미널로 발송했으며, 허브터미널로 모인 소형 상품들은 실제 배송지역 단위로 재분류해야 했다.

이제는 MP시스템을 통해 집화터미

널에서 각 택배 상자의 배송지역 단위까지 자동으로 분류하고 행낭 묶음(25개) 단위로 포장해 허브터미널로 보낸 뒤 추가 작업 없이 배송 터미널로 전달된다. 중간 재분류 과정이 사라지면서 허브터미널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아울러 상차 작업의 편의성과 효율성도 높아졌다.

CJ대한통운관계자는 "증가하는 택배 물량에 원활하게 대응하고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MP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마트 물류기술 투자를 통해 택배종사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택배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음식 팔면 절반은 배달비" 배달료 인상에 상인 '분통'

배달대행업체 잇따라 수수료 올려
밤이나 비 올때 할증 붙어 7000원
"남는 거 없어"... 직접 배달 고민도

음식을 배달로 주문할 경우 배달료가 음식값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치솟고 있다. 7000원짜리 음식을 주문할 경우 배달료 3000~4000원이 붙는다. 비가 오거나 밤에는 배달료가 최대 7000원까지 책정된다. 7000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는데 실제 지불해야 할 비용은 1만원이 넘어가는 셈이다. 배달료 가운데 절반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나머지 금액은 음식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지불해야 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7월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체 생각대로는 지난 1일부터 배달 수료를 1000원 인상했다. 생각대로는 지난 5월 1218만 주문건을 돌파하며 업계 최고기록을 달성한 배달대행업체다. 앞서 지난 7월 요기요도 평균 배달 수료를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했다.

배달 수수료는 기본요금에 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이 붙는다.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할증도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음식값 외에 최소 6000원에서 최대 7000원 사이의 배달료가 책정된다. 소비자와 나눠 부담한다고 해도 소상공인이 지불하는 비용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소상공인들은 배달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연신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 결정을 두고두고 후회한다"며 "방문 손님이 줄어드는 것이 답답해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배달수수료 3000~4000원을 내고 나면 떡볶이 팔아서 뭐가 남겠느냐"고 토로했다.

다른 소상공인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기도 과천시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50대 B씨는 "배달업체에 배달료 인상에 대해 항의했더니 음식값을 올리라더라"며 "지금 다 같이 힘든 상황이 나만 돈 벌자고 음식값을 올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냥 올리는 문안 닫고 버티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높아진 배달 수수료에 직접 배달에 나설 것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도 등장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60대 C씨는 "상황이 좀 좋아지면 오토바이 먼저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다들 배달을 많이 시켜서인지 배달원을 기다리다가 주문이 취소된 경우도 많다"며 "비싼 배달료를 내면서 주문 취소도 여러 번 겪고 나니 이럴 거면 직접 배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덧붙였다.

한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요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단기간의 문제는 해소할 수 있겠지만 악순환으로 이어져 업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홈쇼핑 추석선물 모바일 사전주문 혜택

홈쇼핑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모바일 사전예약 기획전 '추석엔 홈&명가'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홈쇼핑 모바일 앱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에선 오는 14일까지 사전예약으로 구매 시 최대 10% 추가할인 혜택을 적용해 추석 명절상품을 판매한다. 홈쇼핑의 대표 모바일 할인 프로모션인 '10&10(10%할인 및 10%적립)'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돼 더욱 실

속 있게 추석을 준비할 수 있다.

구매상품 출고일 지정도 가능하다. 상품 옵션 중 '출고일'을 선택하면 지정 출고일 기준 2~3일이면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 지정 출고일은 9월25일까지 원하는 날짜로 지정하면 된다. 출고일 지정이 없을 경우 당일 배송이 시작된다.

해당 기획전에선 카테고리별 MD추천상품과 가격대별 상품을 소개해 합

리적인 쇼핑도 제안한다. MD추천 상품은 각 카테고리별 MD가 엄선해 추천하는 ▲신선식품 ▲가공식품 ▲건강식품 ▲생활 ▲이마용 등을 선보인다. 가격대별 상품은 ▲3만원 이하 ▲3만원 이상 ▲7만원 이상 ▲프리미엄으로 구분해 쇼핑 편의성을 높였다.

사전예약과 함께 대량주문 혜택도 제공한다. 오는 22일까지 전화 및 이메일 신청을 통해 대량주문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김승호 기자

에이스침대, '진정한 라지킹' 프로모션

에이스침대는 라지킹(LK) 사이즈의 프레임과 매트리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진정한 라지킹 LK 1800'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에이스 웨딩멤버를 통해 구매한 소비자 10명 중 6명은 큰 사이즈 매트리스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스침대는 이 같은 트렌드에 맞춰 빅사이즈 침대를 구매하길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진정한 라지킹 LK



1800'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에이스침대의 라지킹 사이즈 침대는 타사 동일 사이즈 대비 100mm가 넓은 1800mm의 가로폭이 특징으로 보다 편안하고 아늑한 수면을 즐길 수 있다. /김승호 기자

메쉬코리아 경력직 개발자 공채

물류브랜드 '부릉(VROONG)'을 운영하는 IT 기반 물류 기업 메쉬코리아(대표 유정범)가 테크 직군 경력직 개발자를 공개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

채용 분야는 안드로이드, 프론트엔드, 백엔드 자바 엔지니어 등이다. 2개 부문의 총 16개 직무의 경력직을 모집할 예정이다. 최소 3년 이상의 동일 직군 경력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접수 및 상세 요건은 23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엔지니어링 매니저(개발 팀장), 안드로이드 개발, AI 데이터 사이언스, 백엔드 개발(JAVA), DBA, 프론트 엔드 등 총 6개 포지션의 합격자들에게는 최소 5000만원 이상의 사이닝 보너스(계약금)를 지급한다.

/백지연 기자

청호나이스, 정수기·공청기 렌탈료 할인

청호나이스는 냉온정수기, 냉정수기, 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한 렌탈료 할인 프로모션을 이달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프로모션대상 제품은 카운터탑형인 '청호 살균냉온정수기 세니타', '청호 살균냉정수기 세니타' 그리고 스탠드형인 'NEW 디지털 냉온정수기',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동일한 기능과 디자인에 전용면적과 제품 크기만 다른 '청호 공기청정기 A600', 'A600S' 2종이다.

세니타 정수기 시리즈는 렌탈구매 시 3년 의무약정의 경우 월 3000원, 5년 의무약정은 매월 4000원이 할인되며, 'NEW 디지털 냉온정수기'는 5년 의무약정에 월 3000원이 할인된다. 공기청정기는 5년 의무약정에 '청호 공기청정기 A600'은 월 4000원, '청호 공기청정



청호 살균냉온정수기 세니타와 모델 임영웅.

기 A600S'는 월 3000원이 할인된다. 이들 제품은 전기분해 살균수가 물이 흐르는 유로를 따라 저수조 내부까지 살균, 위생을 강화했다. 또한 기존 자사필터 대비 정수량을 약 40% 증대시킨 AT필터를 적용해 풍부한 물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세라젬 "척추 의료가전 우울감 개선효과"

임상연구 논문 KCI급 저널에 게재
세라젬(CERAGEM)은 세라젬 척추 의료가전의 근육통 및 스트레스, 우울감 개선 효과에 대한 임상연구 논문이 지난 7월 28일 KCI급 저널에 게재됐다고 7일 밝혔다.

게재된 논문명은 '척추 온열 마사지 기기를 이용한 근육통, 우울감 및 스트레스 개선 효과'다. 연구는 어깨, 등, 허리 중 한 곳 이상에 근육통을 겪고 있는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척추 온열 마사지 기기 사용 전후환자들의 근육통, 스트레스, 우울감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자들은 세라젬 척추 의료가전을 사용한 뒤 통증 감소 효과를 보였다.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강도를 평가하는 '통증 척도(VAS)' 수치가 기존보다 46.32% 감소했다. 환자가 통증에 의해 기능 장애가 일어나는 정도를 평가하는 '통증장애지수(PDI)'도 44.86% 하락했다. 환자들의 스트레스 및 우울감 개선 효과도 나타났다. 환자들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는 '우울증 자가진단 지수(BDI)'에서 21.84% 감소세를 보였다. '스트레스 반응 척도(SRI)' 또한 11.48% 줄었다. /백지연 기자